

투자자예탁금, 하루 만에 3兆 늘어 내달 코스피 박스권 탈출 기대감

투자자예탁금, 54.4兆로 급증
외국인 삼성전자 순매도 행진서
실적발표 앞두고 순매수 전환

내달 美 대선 등 리스크 해소
불안심리 진정... 상승세 전망

감소세를 유지하던 투자자예탁금, 신용잔고 등이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증시 반등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 글로벌 변수로 인해 가중됐던 불안심리가 진정되면서 박스권을 유지하는 코스피 분위기도 반전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51조2324억원이었던 투자자예탁금 규모가 바로 다음 거래일인 21일 54조4339억원으로 급증했다. 기업 실적 발표와 미국의 핵심 경제지표 등 시장 모멘텀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발생하면서 지지부진하던 국내 증시에 대한 투심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투자자예탁금이란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맡긴 돈으로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된다. 투자 열기의 가늠자로도 활용되는 만큼, 투자자예탁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검은 월요일'을 맞이했던 지난 8월 5일 이후 투자자예탁금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이날 투자자예탁금은 59조대를 기록했지만 이후 5거래일 만에 53조대로 내려앉았으며, 9월 20일과 이달 8일 50조대까지 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코스피지수는 박스권에 갇히면서 2600선을 두고 등락을 반복했고, 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거래대금도 감소하는 등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반감되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증시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 이미지.

는 모습을 보였다.

이달 들어 29일까지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시장 등)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15조9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역시 16조6700억원에 그치면서 월별 기준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초였던 지난 1월에는 19조4000억원이었던 바 있다. 하반기 들어 글로벌 변수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자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상반기 내내 순매수세를 유지하던 외국인투자자도 하반기 들어 12조5000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코스피 하락에 기여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아치웠는데, 최근에는 33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해당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는 약 24.87% 떨어지면서 신저가를 경신했다. 다만 31일 실적발표를 앞두고 34거래일(28일)째 순매수 흐름으로 전환됐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에 대해 냉랭했던 외국인의 태도가 조금이나마 꺾였다"며 "외국인의 매수 폭(100억원가량)이 크지 않았지만 34거래일만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순매수 전환하자 증시도 1%대 강세로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신용거래잔고도 소폭 늘어나면서 증시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달 19일 연중 최저치인 16조9923억원까지 떨어졌으나 이달 25일 17조9581억원까지 회복됐다. 신용거래용자란 개인 투자자가 담보를 잡고 주식 매수 자금을 증권사에 빌리는 것으로,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1월에는 글로벌 증시를 괴롭혔던 트럼프 리스크가 완화되고, 채권금리, 달러화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극심한 저평가 영역에서 불확실성 완화, 불안심리 진정 등으로 4분기 코스피는 '미운오리'에서 백조로 변신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신한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내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

동일한 제도 내 같은 상품 취급해야
갑작스러운 '머니무브'는 없을 듯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게 되어 은행과 증권업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증권업계는 투자자들의 실물이전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퇴직연금 사업자 44개사 중 37개사(적립금 기준 94.2%)에서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으로 투자하고 있던 상품을 매도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사업자(은행·증권·보험 등 다 금융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최초 가입한 금융사의 퇴직연금 자산을 다른 금융사로 옮기기 위해, 기존에 가입했던 모든 상품을 중도 해지하고 현금화한 후에야 원하는 금융사로 이동할 수 있었다.

재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투자자들은 보통 퇴직연금 자산을 최초 가입한 업권에서 옮기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되면 증권사로의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할 투자자들이 많다는 게 금융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은행권의 과점 체제 성향이 강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400조878억원 중 은행이 52.56%(210조2811억원)을, 증권사와 보험사가 각각 24.13%(96조5328억원), 23.31%(93조2654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권사로의 퇴직연금 시장의 무게추가 옮겨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는 고물가와 금리 인하 시기에 실적 배당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퇴직연금 사업자 업권별 수

익률은 증권이 7.1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은행(4.87%), 손해보험(4.63%), 생명보험(4.37%) 등이 이었다. 이는 증권사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타 금융권보다 다양하기 때문이다.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 보장상품, 공모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등이 있다. 다만 디폴트옵션상품이나 퇴직연금(자산관리) 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에는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며 리츠나 사모펀드 등은 상품 특성에 따라 제도 시행 후에도 현금화한 뒤 자산을 옮겨야 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실물이전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동일한 제도 내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러한 점 때문에 31일 이후 갑작스러운 '머니무브'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노머스 "글로벌 종합 엔터 솔루션 기업 도약"

IPO 간담회

데이터 기반 선호 콘텐츠 등 분석
올해 반기 매출 277억... 흑자전환
공모자금으로 신규 IP·운전자본 확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김 대표는 "경쟁사들은 팬플랫폼, 공연, MD에 전념하는 등 대부분 단일 비즈

“이번 기업공개(IPO)를 계기로 글로벌 종합 엔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김영준 노머스 대표(사진)는 29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을 통한 중장기 성장 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설립된 노머스는 종합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 플랫폼 '원더월'과 '프롬'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콘텐츠, 커머스, 공연, 팬덤 플랫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팬들의 선호 콘텐츠와 상품 형태, 연령 및 국가별 평균 소비 패턴, 사용자당 평균 매출(ARPU) 등을 분석해 보다 효과적이고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한다.

김 대표는 "노머스의 데이터로 팬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과 어떤 장면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멤버를 좋아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커머스 사업에서는 선호하는 상품 형태와 ARPU, 구매 주기, 나이·국가별 평균 소비 패턴 등 전반적인 소비 관련 지표가 축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머스가 확보한 아티스트 IP는 325개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역량을 통해 노머스는 올해 반기 기준 매출 277억원, 영업이익 31억원을 기록하며

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나 노머스는 하나의 아티스트 IP에 대해 음원·음반 이외의 모든 활동과 IP 비즈니스를 노머스와 함께 진행함으로써 아티스트 IP 대상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머스는 공모 자금을 신규 IP 및 운전자본 확보, 연구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노머스는 IT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아티스트와 팬들이 보다 편리하게 만나고, 비즈니스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며 "멀티 서비스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손실을 불러오는 비즈니스 리스크를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고한 밸류 체인을 만들어주며, 노머스 서비스의 원천인 아티스트와의 네트워크도 견고해져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노머스는 이번 상장을 통해 113만주를 공모한다. 주당 공모 희망가는 2만7200원~3만2000원으로 총 공모예정금액은 약 307억원~341억원이다.

수요 예측은 29일까지 5거래일간, 일반 청약은 11월 4~5일 진행한다. 11월 중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이 맡았다.

/원관희 기자 wkh@

美 변동성에도 '레버리지 ETF' 투자 확대

해외주식 Click

반도체, 美 국채, 테슬라 등 매수세
손실 확대 가능성 인지하고 투자해야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미 증시의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레버리지 ETF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주로 반도체, 미국 국채, 테슬라 관련 레버리지 ETF 등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10월 22일~28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3배 ETF(SOXL)'로, 이 종목에 약 1억3069만 달러어치가 유입됐다. 이 상품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로 반도체 지수가 상승할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최근 반도체 지수가 주춤하고 있음에도 서학개미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해 해당 상품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서학개미들은 2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 3배 ETF(TMF)'를 2212만 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최근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TMF 가격은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테슬라 관련 레버리지 ETF에도 자금이 몰렸다.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TSLT)에 2011만 달러가 유입됐다.

테슬라 주가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약 23% 상승했음에도 서학개미들은 여전히 추가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달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테슬라가 '트럼프 수혜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됐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와 테슬라의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반도체 업종은 AI 투자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급격한 경기 둔화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테슬라는 실적 성장이 예상돼 주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테슬라 주가는 내년엔 갈수록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가 하단 역시 과거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레버리지 ETF 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 폭도 커질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상승 기대감으로 매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큰 상품이므로 손실 확대 가능성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관희 기자